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2. 9.(일) 11:00 < 2.10.(월) 조간 > 배포 2025. 2. 7.(금)

1월 무역기술장벽(TBT) 598건, 전년 대비 33% 증가

2025년 세계무역기구(WTO)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*는 1월 598건으로 전년 대비 33%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연초부터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다.

*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)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·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

국가별로는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으며,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(EAC)*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.

* 동아프리카 공동체(EAC): 르완다, 케냐, 탄자니아, 우간다, 부룬디 5개국 소속

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(35.6%), 화학 세라믹 분야(15.9%), 전기 전자 분야(9.0%)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었다.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,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작년 동기 대비 63% 증가하였다.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,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서 기인하였다.

우리나라 수출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(22.0%)을 통보하였다.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,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하여 작년 동기(42건)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. 2,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.

* 10대 수출국: 미국, 대만, 일본, 유럽연합(EU), 베트남, 중국, 멕시코, 호주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
5대 신흥국: 아랍에미리트, 사우디아라비아, 칠레, 인도, 러시아

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. 이에 정부는 “산·학·연·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전민영 (043-870-5520)
		담당자	주무관	이윤희 (043-870-552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		2025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

【 **표1** 1월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(단위: 건) 】

연도	2025년	2024년	2023년	2022년	2021년
1월	**598**	448	389	374	346

【 **표2**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(단위: 건) 】

국가	미국	르완다	케냐	탄자니아	우간다	부룬디	이집트	한국	말라위	브라질
1월	78	68	51	48	44	43	37	21	17	13

【 **표3**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(단위: 건) 】

10대 수출국	미국	대만	일본	유럽연합(EU)	베트남	중국	멕시코	호주	말레이시아	싱가포르
1월	78	8	7	6	4	3	1	0	0	0
5대 신흥국	아랍에미리트		사우디아라비아		칠레		인도		러시아	
1월	11		9		5		0		0	

【 **표4** 미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(단위: 건) 】

연도	2025년	2024년	2023년	2022년	2021년
1월	**78**	42	37	38	49

【 **표5**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 】

2024년 1월(448건)	2025년 1월(598건)
	